

사부 李洪志
2016년 11월 27일

아르헨티나법회에 보내는 축사

(사부 李洪志 2016년 11월 27일)

아르헨티나법회에 보내는 축사

아르헨티나법회에 참가한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법은 우주의 법이며 생명을 성취하는 법으로, 그를 얻으려면 반드시 착실하고 착실하게 마음을 조용히 하고 끊임 없이 학습하여 그를 읽고 이해해야 하며, 법의 요구에 따라 처신하고 하나의 수련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비로소 대법제자이다. 연공은 수련의 보조로서, 양자 중 어느 하나가 없어도 안 된다. 그러나 이처럼 큰 법이 세상에서 전해지는 것 역시 기필코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세상기풍이 파괴되고 인류도덕이 저하되어 인류에게 위협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도중생을 위해 대법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수제자는 구도중생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소중히 여기라! 이는 만고에도 만날 수 없는 것이다!

법회의 성공을 기원한다! 여러분 감사하다.